

 인천광역시		<b>보 도 자 료</b>		 재외동포청  인천 설치 확정!	
		배포일자	2023년 5월 24일(수) 총 2매		
담당 부서	영유아정책과	담 당 자	• 출산지원팀장 • 담당자	김성미 ☎ 440-3221 김도연 ☎ 440-3223	
사진(이미지)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**인천시, 소득 상관 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 시술비 지원한다**  
**- 소득기준 폐지, 오는 7월부터 난임부부 누구나 시술비 지원 -**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오는 7월부터 임신을 희망하는 모든 난임 부부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.

시는 지금까지 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에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해 왔는데, 고액의 시술비가 필요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자 소득 기준을 없애기로 전격 결정했다.

2021년 말 기준 인천의 난임부부는 11,977명으로 2018년(9,835명) 대비 21.7% 증가했다.

이번에 소득 기준을 폐지하면서 시는 1차 추경예산을 통해 12억 7천 5백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했다. 이는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950여 난임부부가 올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.

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인천시에 거주(주민등록 기준)하고 건강보험 대상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이며, 난임 시술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1회 한도로 지원한다.

한편, 시는 한의약을 이용한 난임 치료를 올해부터는 난임부부의 남성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. 관내 지정 한방의료기관 중 본인이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, 본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는 한의약 치료를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.

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“난임부부들이 경제적·심리적 부담을 덜고 소중한 아이를 건강하게 품에 안기를 바란다.” 며, “인천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.” 고 말했다.

< 참고 > 여성가족국 언론브리핑 자료